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지난 9·19 남북 공동선언의 합의로 열리게 된 비무장지대(DMZ)가 일반인에게 개방된다고 한다. 모든 구역이 개방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올해 3·1절 10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바와 같이 비무장지대가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만은 틀림없다. 70여 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 평화와 개방의 상징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활용에 있어 독일의 '그뤼네스 반트' 사례는 한국에도 이미 잘 소개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에게 많은 영감과 교훈을 준다.

독일은 통일 직전과 직후부터 국경 개방에 대비하여 동서독의 환경 운동가들이 국경 지역을 어떻게 보존하여 후대에 물려줄지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하였다. 환경이나 인권 운동의 역사가

한반도 평화의 봄은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깊은 유럽에서는 환경 단체들을 중심으로 동서독 국경 보존 문제에 대해 팔을 걷고 나섰다. 통일과 함께 진행된 이러한 환경 보호 운동이 없었더라면 과거 동서독 국경 지역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이다.

이번에 열린 DMZ 평화 안보 체합길도 궁극적으로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방안과 연계되고 국민들의 평화 요구와 환경 보호 등 다른 가치들이 잘 조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직 완전한 분단 해소를 경험하지 않은 우리로서는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하며 향후 비무장지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남북 간 진지한 협의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해 독일의 한 통일 인사는 자신들의 그뤼네스 반트에 비해 우리 비무장지대의 상징적 가치는 훨씬 더 광범위하다고 귀띔해 주었다. 독일은 동서독 장벽이 건설된 지 30년 만에 통일을 했지만 한국의 분단은 7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환경과 생태적 측면에서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말도 덧붙였다. 비무장지대는 지금 우리에게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지만 앞으로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는 평화와 번영의 산교육장이 될 것이다.

지난해부터 한반도에는 새로운 변화

의 바람이 불고 있다. 1년 만에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역사적으로 상상할 수도 없었던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다. 물론 2월 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 없이 종료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러나 내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 비핵화 회담의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이 다시 전개되고 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간 서로가 원하는 것이 분명해진 만큼 이를 절충하기 위한 우리의 중재 노력이 다시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언제 다시 열릴지는 모르지만 다시 열리게 되는 북미 회담에서는 더 이상의 지연과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북미 간 포괄적인 로드맵을 합의하고 구체적인 조치들을 배열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북미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옵션들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이제 곧 1주년을 맞는 4·27 판문점 선언에 따른 남북 간 합의 사항의 이행도 다시 탄력을 받아야 할 것이다. 지난 남북 관계사에서 북핵 문제와 남북 관계는 늘 서로 영향을 받았다. 비핵화 협상이 다면 남북 관계도 다터졌지만 그런 국면에서도 남북 관계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또한 전개되었다. 남북 관계의 자율성 확보는 지금 국제 사회가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틀을 훼손하기 위

함이 아니다. 국제 사회의 규범은 준수하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한 연결 고리들이 있어야 남북 관계에서 우리의 레버리지가 확보될 수 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자주 보고 소통한 사람들끼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쉽게 많은 해법을 찾아 나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변화와 과정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시도도 있다. 며칠 전 "한미 동맹 공조의 틀을 벌리고 한반도 평화의 물길을 되돌리며, 남북미의 대화 노력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갈등과 대결의 과거로 돌아 가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그런 점에서 이해할 만하다. 이런 사람들에게 비무장지대 평화 안보 체합길의 기회를 우선 주었으면 한다.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었던 변화를 폄하하고,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는 무책임하다. 틀린 것이 있으면 건실적으로 비판을 하고 고안을 제시하면 된다. 비판을 위한 비판, 맹목적인 비판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꽃샘추위가 아직 가신 것은 아니지만, 그 추운 겨울을 지나 봄이 왔는데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종교칼럼

고착과의 싸움, 이 험난한 여정은 언제 끝날까



황성호  
영암 신복성당 주임신부

한참을 함께 뛰어놀던 아이들이 양편으로 토라져서 이제 서로 얼굴도 보지 않는다. 시간이 좀 지나자, 한 아이가 화해를 하려는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화해할 이목이 커져서 '싫어'하면 서 다른 편 아이들에게 사대질까지 한다. 도대체 왜 잘 뛰놀았던 아이들이 이 지경까지 뒤흔어하는 생각으로 '뭘 애들이니까 금방 화해하겠지' 스스로 위안해 본다. 그러나 좀체 아이들은 더 큰 소리가 오갈뿐 화해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화해를 이끌어내려던 아이는 이제 지쳐 그냥 가운데 서 있을 뿐이다.

사제관으로 돌아와 TV 뉴스를 보았다. 여당과 야당이 육신각신하며 양편으로 나뉘어 싸우는 광경이 펼쳐진다. 한참 고성이 오가고 말도 안되는 논지를 퍼

기도 한다. 이들의 정쟁은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전 법무부 차관인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와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등에 대해 "검정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그런데 야당은 '황은하-드루킹 재특검'으로 맞불을 놓은 모양새다. 이게 무슨 논리인가? 우리나라를 운항해야 할 이들이 토라져버린 아이들처럼 좌충우돌한다.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내로남불이라는 웃지 못할 신조어까지 만들어가면서 전혀 논리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는 주장을 큰 소리로 지를 뽐낸다. 이 싸움은 언제 끝날까?

최근 인터넷 강의를 통해 정신 역동이론을 듣는데, '자아의 방어 기제'가 매우 인상적이었다. 스톨레르의 방어 기제 중 합리화와 고착이라는 방어 기제에 관심이 갔다. 우리의 정치 현실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합리화는 성취되지 않은 욕망이나 불합리한 태도와 생각에 대해 그럴듯한 핑계를 대고 현재 상태를 정당화하는 방어 기제다. 이 합리화는 거짓말과는 다르다. 합리화는 무의식

에서 일어나는 방어 기제이므로 자신의 변명(합리화)이 허구라는 걸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다. 이와 달리 거짓말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변명(거짓말)이 허구라는 것을 의식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 고착이라는 방어 기제는 더 심각하다. 고착은 특정 발달 시기에 고정되어 연령에 따른 정상적인 발달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방어 기제이다. 그 예로 신체 발달과 인지 발달은 제 나이대로 성숙했지만, 어린 아기 말투를 쓰거나 어리광을 부리는, 그러니까 때를 쓰는 경우이다. 나는 우리 정치인들이 지성인이고 성리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나는 자주 이 생각을 의심하게 된다.

우리 사회는 변화되고 있다. 정의로운 세상으로 향하고 있기에, 이제는 밑바닥에서 이루어지는 광풍이 수작은 용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시민의식은 점점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아직도 적응하지 못하고 헤매는 이들이 있다. 혹자는 우리 사회를 고착된 사회,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고착된 이들에게까지 말한다. 우리 사회가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것이다.

촛불 혁명 이후에 가장 느리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 정치라고 한다. '삼겹살 불판론'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의 노동자와 서민의 입장을 대변했고 제도권의 권위주의와 엘리트주의를 깨는데 앞장섰던 고(故) 노회찬 의원이 그림자. 바꾸지 못하고 있으니 고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 지금의 시대가 싫은 것이다. 지금의 변화보다 예전에 자신들만 누렸던 기득권과 편안하고 풍요로운 물질주의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놈의 고착에 갇혀 있을 셈인가?

지금 가톨릭교회는 40일 동안 예수의 수난과 죽음에 동참하며 자신의 삶을 되 돌아보고 기도와 단식과 자선을 행하는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시기이다. 회개는 '길을 바꾸다.' '돌아오다'라는 뜻인데, 신앙인들이 고착되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제 좀 진심해지자. 좀 더 성숙해지자. 언제까지 어린 아이들이 토라져서 싸우는 것처럼 등지고 살려는가? 좀 솔직해지자. 그래서 우리의 고착을 끝내 보자.

북한 협상 스타일과 최종 선택

것이다. 당초에 예상했던 남북 정상 회담보다 한미 정상 회담이 먼저 이뤄지게 되었다. 이것은 북한의 입장 파악보다는 먼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한 절차로 판단된다. 한미 간 양 정상회담이 중대 돌파구 마련으로 이어질지 주목되는 이유이다.

미국은 현재까지 '빅딜' 타결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영변 핵시설 외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북·미 간 모든 의제를 한 번에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민수 경제와 인민 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의 제재를 해제하면 영변 지구의 플루토늄·우라늄을 포함한 모든 핵물질 생산 시설을 미국 전문가들의 입회 하에 양국 기술자들의 공동 작업으로 영구적으로 완전히 폐기한다"는 제안을 하였다. 미국이 요구하는 '빅딜'과 북한이 요구하는 '단계적 합의'의 절충안 '굿 이너프 딜'은 청와대의 아이디어로 북미간 절충점을 찾아보겠다는 출구 전략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과 북한의 의견은 왜 서로 다른 것일까? 실제 북한

의 협상 전략은 서구의 민주 국가들과는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미국이 비교적 중시하는 원원 협상 결과를 강조하지 않으며 협상 스타일 또한 북한만의 독특한 공간과 환경 속에서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다.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변하지 않는 협상 행위 요소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 사회주의 협상 문화 영향, 전통적인 전략 문화, 조선 로동당의 협상 실천과 경험에서 형성된 특징 등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미국을 비롯한 여타 민주 국가와는 다른 평양식 협상관이 만들어진 것이다.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의 결렬 사항을 이러한 북한의 협상 요소와 연계하여 분석해보면 흥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약소국의 대 강대국 감압 외교라는 독특한 평양식 협상관이 바로 그것이다. 이에 대북 협상자들은 북한의 불변 협상 요소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남북 협상 시 언제든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이와 같은 상황이 재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당면 문제인 경제 상황 앞에서

는 이러한 협상 전략조차도 변화의 기로에 서있다.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미 협상을 재개하여 최악의 경제 상황을 타개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준시장 경제나 다름없는 장마당은 대화의 장으로 김정은을 유도하고 있다. 지금 현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미 협상의 신속한 재개와 남북 정상 회담이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북핵 문제로 인해 어려워진 안보 파탄의 문제 제기나 아니라 여야를 초월한 남북 관계의 새로운 진입이 필요한 때이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광주·전남의 남북 교류 협력 사업도 전면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방문과 지원을 떠나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인력 및 기술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평양 옥류관의 평양냉면 광주 체인점 설치 시 평양의 요리사는 물론 그들의 가족을 포함한 인력과 더불어 냉면 기계까지 세트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물론 법적인 분야도 함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이러한 실사구시적인 사업을 통하여 진정한 남북 교류 협력의 장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社說

30년간 오염 물질 배출 왜 아무도 몰랐을까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지금까지 30여 년간 대기 오염 물질을 무단 배출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영산강 유역환경청과 전남도는 최근 광양제철소에서 1기 고로(용광로)를 첫 가동한 1987년 이래 30년 남도록 고로 정비 과정에서 대기 오염 물질을 별도 여과 조치 없이 무단 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남도는 현재 광양제철소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영산강환경청도 같은 법 제38조의 2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해 광양제철 측에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고, 오는 1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했다. 반면 광양제철소측은 고로 정기안전 점검을 하려면 용광로 온도를 낮춰야 하는데, 이 때 정화 장치를 가동하지 못해 여과 없이 가스를 1시간가량 배출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점검 과정에서 가지 배출관(고로 1기 당 4개씩 총 20개)을 통해 가스를 배출

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이상 상황'에 해당돼 면책이라는 주장이다. 광양제철소의 고로는 현재 5기로, 고로별로 8주에 한 번씩 24시간 정기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광양제철소는 환경부 공식 집계로도 지난해 대기 오염 물질 1만9668t을 배출했으며, 전국 업체 중 세 번째로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다. 특히 이번 무단 배출은 정부 감시망에 포함되지 않은 가지 배출관을 통한 것으로, 그동안 얼마나 많은 양이 배출됐는지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남도와 영산강환경청은 광양제철소측을 의법 조치하되, 업체 측이 인프라 확충이나 관리 강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광양제철도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을 제철업계 공정의 특성으로 둘러둘 게 아니라 국민 건강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다.

'예타 제도 개편' 지역 SOC에 봄바람 불어오나

정부가 5월부터 비수도권 대규모 사업의 예타당성조사(예타) 평가 기준을 완화하기로 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예타는 정부가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로 1999년 도입한 제도로 그동안 몇 차례 개편을 했지만 이번처럼 대대적으로 틀을 바꾼 것은 처음이다.

개편 내용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평가 기준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적용하기로 한 것이 특징이다. 즉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50%를 차지하던 경제성 배점과 엘리트주의를 깨는데 앞장섰던 고(故) 노회찬 의원이 그림자. 바꾸지 못하고 있으니 고착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바꾸지 못하는 것일까? 지금의 시대가 싫은 것이다. 지금의 변화보다 예전에 자신들만 누렸던 기득권과 편안하고 풍요로운 물질주의의 삶을 포기할 수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놈의 고착에 갇혀 있을 셈인가?

평균 19개월 걸리던 예타 평가 기간을 1년으로 줄이기로 한 점도 환영할 일

다. 그동안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인 대형 SOC사업은 완공해 봐야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해 왔다. 이 때문에 이 지역은 수도권은 말할 것도 없고 영남권에 비해 산업 기반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산업 기반 미비는 결국 인구 감소-지역 낙후-인구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의 이번 예타 개편으로 당장 광주 송정-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해양경찰 서부정비장 구축 사업과 광양항 낙포두부 리뉴얼 사업 등 역시 국비 지원의 길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예타 개편은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의지를 확실히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경제 논리에 밀려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전남 지역으로서 이번 기회에 절호의 기회를 맞은 만큼 이를 잘 살려 나가야 할 것이다.

無等鼓

영국 작가 닉 혼비의 자전적 소설 '피버 피치'는 열렬한 팬덤에 대한 보고서다. 열한 살 때 아버지를 따라 하이버리에 갔다가 축구에 매혹된 그는 그야말로 축구의, 축구에 의한, 축구를 위한 삶을 산다. 데이브다라 축구가 우선이며, 경기나 기적적인 역전승을 거두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곳이 경기장이다. 천지가 뒤집히는 듯 엄청난 희열과 카타르시스, 눈물, 감동과 함께 팬들은 이 세상의 중심이 된다.

닉 혼비는 말한다. "아무리 훌륭한 선수를 보유한 팀도 나를 흥분시키지 못했다. 나는 약

팬

한 상대마저 어렵게 이기는 그저 그런 팀과 사랑에 빠져 버렸다. 그것은 고통으로서의 오락이고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었다." 지난 10년간 '보살'이라는 말을 들었던 한화 팬들의 심정도 이랬을까.

2019 프로 야구 시즌이 시작됐다. 겨우내 기다렸던 팬들의 기대와 달리 KIA 타이거즈는 극심한 타격 부진 속에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다. KBO 역대 최다인 열한 번의 우승 감격을 맛본 팬들에게 '고통으로서의 오락' 체험은 너무 가혹하다. /유재만 편집1부장·부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국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0-9600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220-0642	220-0697	(FAX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